

대학 입시에서 자신의 성격 드러내기



▲ 대학 관계자와 인터뷰 중인 대입 지원 학생. 사진=shutterstock

대학 입시 과정에서 지원자는 원서를 통해 자신의 학업적 성취와 표준시험 점수, 과외활동 성과 등을 대학에 보여준다. 이것들은 분명히 중요한 요소지만 대학은 이런 수치와 표면적인 것에만 주목하지는 않는다. 대학의 입학 사정관들은 '지원자가 대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지원자의 성격과 개성이 그 대학에 잘 맞을 것인지 보고 싶어한다. 다른 말로 하면 대학은 지원자의 '성격' (personality)이 원서를 통해 그대로 드러나기를 기대한다. 이를 충족시키려면 지원자가 무엇을 해야 할까?

대입 컨설팅 전문기관 'Admission masters' (theadmissionmasters.com)의 Richard Vincent Kim 컨설턴트에 따르면 아직 보편화되지는 않았지만 일부 대학은 지원자가 어떤 사람인지 더 잘 파악하기 위해 성격 테스트를 활용하기도 한다. 이런 방법에는 주로 3가지가 있다. 바로 인터뷰와 에세이, 그리고 추천서다.

첫째, 인터뷰는 대학의 관계자나 동문 등으로 구성된 인터뷰어가 지원자를 1대1로 만나거나, 줌 등 화상채팅 방식으로 대화한다. 인터뷰어는 지원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후 인터뷰에 대해 종합적인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 보고서는

원서에 포함돼 대학이 마지막으로 합격 또는 불합격 결정을 내릴 때 한 가지 요소로 사용될 수 있다.

둘째, 에세이다. 지원자의 성격과 성품이 가장 잘 드러나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에세이다. 입학사정관들은 에세이를 통해 지원자가 '어떻게 사고를 하는지', 그리고 지원자가 어떤 경험을 하면서 생활해 왔는지 알 수 있다. 또한 10대 청소년이 어떻게 글을 쓰고 어떤 목소리를 내는지, 자신의 논리와 생각을 어떻게 조직하고 펼쳐 나가는지 파악할 수 있다.

셋째, 추천서다. 추천서는 지원자가 어떤 사람인지 대학이 알 수 있는 훌륭한 방법이다. 교사들은 학생이 어떤 성격적 특징, 인격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추천서를 통해 언급한다. 대학은 이를 통해 해당 지원자가 어떤 타입의 사람인지 단서를 얻을 수 있다.

지원자의 성격과 인품은 입시에서 당락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까지는 아닐지라도 대부분의 대학은 분명히 고려한다. 대학이 성격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캠퍼스에 왔을 때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만한 학생을 뽑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그 대학의 문화와 잘 맞고, 남들과 두루 잘 어울리며, 성공적으로 대학 생활을 할 것이라고 판단되는 학생을 대학은 원한다.

그러나 오해는 하지 말자. 대학은 단지 특정 타입의 지원자만 선발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상 대학이 원하는 것은 '다양성' (diversity) 이다. 다양한 개성을 가진 학생들로 신입생 커뮤니티를 구성하기를 대학은 바란다.

특히 내성적인 학생은 에세이가 자신의 성격을 잘 드러낼 수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다. 메인 에세이와 추가 에세이, 그리고 온라인 포트폴리오 등은 직접 타인과 대면해서 1대1로 대화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

“소수 인종 우대 정책 폐지, 백인·아시안 도움될 것”

미국 연방대법원이 흑인 히스패닉 등 인종을 감안해 대학 신입생을 뽑는 '소수인종 우대 정책(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에 대해 지난 29일 위헌 판결을 내렸다(관련 기사: 본보 1479호 대법원 '소수 인종 대입 우대 위헌').



▲ UC버클리 Sather Gate를 나서는 학생들. 사진=berkeley.edu

소수 인종 우대는 1950년대 시작된 흑인 민권 운동의 흐름을 타고 케네디 전 대통령이 1961년 처음 도입했다. 1968년 마틴 루터 킹 암살 사건 후 대학을 중심으로 흑인 인권 시위가 번진 것을 계기로 대학으로 일제히 확장됐다. 소수 인종 우대 정책은 '기회의 평등' 만으로는 부족하며 적극적으로(affirmative) '결과의 평등'을 추구해야 한다는, 진보의 정신을 대표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소수 인종 우대 정책 위헌 결정에 따라 지난 60여년간 대학이 소수인종을 우대해 실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뽑던 관행이 없어지게 됐다. 실제로 소수 인종 우대는 흑인·히스패닉 등 상대적으로 낮은 성적을 보이고 있던 학생들의 대학입학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뉴욕타임스는 "이 제도가 폐지되면 엘리트 대학의 학생 구성에 백인·아시아인이 많아지고 흑인·히스패닉이 줄어들 것이 확실하다."면서 "대학에 소수 인종 우대가 전격적으로 확대된 1969년 흑인 합격생 수가 전년 대비 두 배 수준으로 늘어난 대학이 많았다." 밝혔다.

이번 판결은 그 동안 소수 인종 우대 정책에 따라 실력이 있어도 흑인,

히스패닉에 밀려 떨어졌던 한인 학생들에게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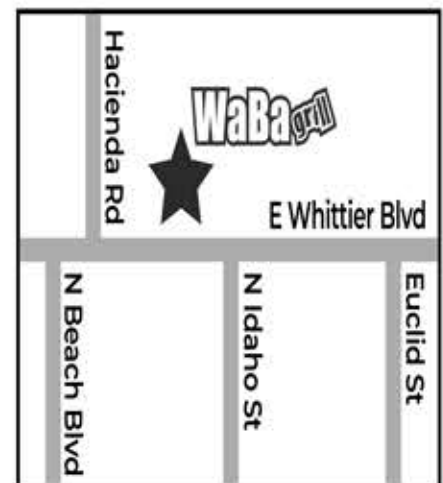
이 정책 폐지에 찬성을 한 보수 진영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하버드대 지원자 중 학업 성적이 하위 4분위(하위 40%)에 속한 흑인 미국인의 합격률(12.8%)이 상위 1분위(상위 10%)의 아시아계 미국인의 합격률(12.7%)보다 높았다."고 밝혔다. 흑인·히스패닉에 유리한 소수 인종 우대가 아시아인 등에게 역차별로 작용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캘리포니아·플로리다·미시간·워싱턴 등 9곳은 이미 역차별을 이유로 인종을 기반으로 하는 대학입학 학생 선발을 금지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 주들의 대입 결과를 분석해 "소수 인종 우대 정책 금지는 백인·아시아계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다른 학생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했다.

UC버클리의 경우 소수인종 우대 정책 폐지 이후 흑인·히스패닉 학생의 비율이 절반으로 줄었다. 플로리다대는 20년간 흑인 학생 등록률이 6% 하락했다.

WaBa grill

La Habra Eat Smart, Be Healthy!



562.266.0011

<https://order.wabagrill.com/store/5966>

1351 W. Whittier Blvd. La Habra, CA 90631